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9. 15.(월) 12:00
(지면) 2025. 9. 16.(화) 조간

‘AI와 디지털정부로 연결하는 글로벌 파트너십’ 제14회 한-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 개최

- 9월 15일(월) ~ 9월 19일(금)까지 1주간 흑해경제협력기구(BSEC) 초청연수 운영
- ICT 교육(인공지능, 클라우드 등), 디지털정부 우수사례 현장방문, 해외진출 간담회(BSEC 회원국, 국내 기업)를 통한 한국형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계기 마련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와 외교부(장관 조현)는 9월 15일(월)부터 9월 19일(금)까지 흑해경제협력기구(BSEC)와 함께 ‘제14회 한-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 초청연수’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○ 흑해경제협력기구(BSEC, Organization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)는 흑해 연안 국가 간 교역과 경제협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1992년 튀르키예 주도로 설립된 지역경제기구*이다.

* (회원국) 알바니아, 아르메니아, 아제르바이잔, 불가리아, 조지아, 그리스, 몰도바, 북마케도니아, 루마니아, 러시아, 세르비아, 튀르키예, 우크라이나

□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흑해지역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흑해경제협력기구(BSEC)에 ‘부문별 대화 동반자(SDP)’ 지위로 가입했다.

□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외교부와 협력해 BSEC 사무국과 함께 격년제로 정보통신기술(ICT) 등 디지털정부 분야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.

○ 홀수 연도에는 BSEC 회원국 관계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초청연수가 진행되고, 짝수 연도에는 한국 범정부 사절단이 회원국을 방문하는 현지연수가 운영된다.

- 본 연수과정은 흑해 연안 국가들과의 중요한 협력 창구로, 2024년에는 조지아·아제르바이잔에 사절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, 협력 성과로 무상원조 사업인 한-조지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·운영(2026년~2028년)을 추진하고 있다.
- 올해는 홀수 연도에 해당해 초청연수로 진행되며, 튀르키예·조지아·아제르바이잔 등 총 5개국* 8명이 참여한다.
 - * (참가국) 튀르키예, 조지아,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불가리아
- 초청연수 교육과정은 전문강좌와 현장방문, 한국 우수사례 공유, 해외 진출기업 업무 회의(비즈니스 미팅) 등으로 구성된다.
 - 본 과정에 앞서 사전 온라인교육(9.5.~9.12.)으로 한국의 디지털정부 발전 과정을 비롯해 ▲구비서류 제로화, ▲혜택 알리미 서비스, ▲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등 주요 정책도 알릴 예정이다.
 - 본 과정은 사전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▲인공지능, ▲클라우드, ▲사이버보안, ▲과세(관세 등) 등 협력국에서 관심이 있는 분야 강의로 편성했으며, ▲안양 스마트도시통합센터, ▲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(세종) 등 현장 방문도 진행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시스템을 홍보할 예정이다.
 - 또한, 흑해경제협력기구(BSEC) 지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디지털정부 관련 우리 기업과 협력국 관계자 간 직접 소통하는 해외진출 간담회도 개최해 우리 기술을 홍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수출도 지원할 계획이다.
-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“이번 제14차 한-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및 공공 인공지능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기업들도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행정안전부 국제디지털협력과	책임자	과 장	박병준 (044-205-2781)
		담당자	사무관	백경록 (044-205-2782)
	외교부 중유럽과	책임자	과 장	이충만 (02-2100-7457)
		담당자	외무행정관	최승현 (02-2100-7462)

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- '16년부터 짝수년도에 외교부와 협력하여 BSEC* 회원국에 디지털정부 사절단 파견, 홀수년도는 초청연수 실시
 - ※ 외교부는 예산제공 및 현지공간 협의 지원, 우리부가 프로그램 기획·운영
 - * 루마니아, 세르비아, 그리스, 튀르키예 등 흑해 연안 13개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(참고2)

< 최근 운영 사례 >

- ▶ ('19.) 루마니아·세르비아·튀르키예·우크라이나·조지아·아르메니아 등 9개국 초청(11.11.~11.15.)
 - ▶ ('21.) BSEC 9개 회원국 ICT 및 외교부 공무원 대상, 온라인 세미나 개최(11.23.~11.25.)
 - ▶ ('22.) 루마니아·세르비아 사절단 파견(11.28.~12.3.)
 - ▶ ('23.) 불가리아·세르비아·아제르바이잔·조지아·그리스 등 8개국 초청(10.30.~11.3.)
 - ▶ ('24.) 아제르바이잔·조지아 사절단 파견(9.4.~9.11.)
- 대부분 ODA 중점협력국이 아니어서 디지털정부 협력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BSEC 지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
 - ※ (BSEC회원국 중 ODA중점협력국) 우크라이나
 - 디지털정부 발전단계는 개도국 수준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우리와의 협력 잠재력이 풍부한 BSEC 지역 디지털정부 협력 확대 계기로 활용

□ 연수 개요

- (과정명) The 14th Korea-BSEC ICT Cooperation Program
- (기간/장소) '25. 9. 15.(월)~9. 19.(금) / 서울, 세종 등
- (초청대상) BSEC 13개 회원국 중 희망국 ICT 및 외교부 공무원 5개국 8명
- 교육과정 구성안
 - 한국의 디지털정부 정책, 인프라, AI 등 최신기술 동향 및 우수 시스템·서비스 사례 교육 등(사전과정 8개, 본과정 20개)
 - 참가국별 디지털정부 현황 공유 및 향후 상호 협력 계획(액션플랜 등) 논의,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G2B 비즈니스 미팅(협력국 관심분야 중심) 등

참고2

흑해경제협력기구(BSEC) 개요

□ 흑해경제협력기구(BSEC) 개요

- 흑해연안 13개 국가 간 협력을 위해 튀르키예의 주도로 설립된 기구

구 분	내 용
정식명칭	흑해경제협력기구(BSEC : Organization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)
설립목적	흑해연안국의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
설 립 일	1992.6.25. (튀르키예 주도)
협력 분야	에너지, 환경, 무역, 경제개발, 관세, 농업, 은행, 금융, 과학기술, 정보통신 기술, 보건, 의학, 통계 자료 및 정보 교환, 중소기업, 교통, 관광, 교육, 문화, 범죄척결, 제도개선, Good Governance, 위기 지원

□ 흑해경제협력기구(BSEC) 회원국 및 참여국가



- 회원국(13) : 튀르키예, 러시아, 알바니아, 아르메니아, 아제르바이잔, 불가리아, 조지아, 그리스, 몰도바, 루마니아, 세르비아, 우크라이나, 북마케도니아
- 옵저버(5) : 이집트, International Black Sea Club, Energy Charter Secretariat, The Commission on the Protection of the Black Sea Against Pollution, European Commission
- 부문별 대화동반자(9) : 한국, BINSА, BSEC-URTA, BRASS, BSUN, BRAF, CPMR, UNWTO, Danube Commission¹⁾

□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우리나라는 흑해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흑해경제협력기구(BSEC)에 부문별대화동반자(SDP) 지위로 가입(2011.1.1.)
 - ※ 한국은 정보통신 분야 협력국으로 참가, '11년부터 매년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 회의를 BSEC 국가 중 희망국가 대상으로 개최
 - ※ 홀수년도에는 우리나라로 초청, 짝수년도는 현지 방문, '16년부터 행안부와 협력

1) Black Sea International Shipowners Association(BINSА), Union of Road Transport Association in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Region(BSEC-URTA), Black Sea Region Association of Shipbuilders and Shiprepairers(BRASS), Black Sea Universities Network(BSUN), Black Sea Broadcasting Regulatory Authorities Forum(BRAF), Conference of Peripheral Maritime Regions of Europe(CPMR), Danube Commission, World Tourism Organization(UNWTO)